

브라질, EU에 EUDR(산림벌채방지규정) 발효 연기 요청

□ 브라질 외교부는 9월 11일 EU에 서한을 보내 EUDR(산림벌채방지규정, EU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의 발효를 연기할 것을 요청함¹⁾.

- EUDR은 산림벌채를 통해 생산된 농축산물의 EU 내 판매와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2024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임²⁾.
 -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소기업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적용 예정
- EUDR을 적용받는 제품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산림벌채로 토지 용도가 변환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소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7개와 이를 사용해 생산된 파생상품임.
 - 소고기의 파생상품은 냉장 및 냉동 소고기, 소가죽, 소가죽제품 등, 코코아의 파생상품은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버터, 초콜릿 등, 목재의 파생상품은 합판, 통나무, 가구 등을 의미함.
- EU에서 규제 품목을 유통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이 산림벌채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원산지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거치고 실사 보고서를 EU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 브라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EUDR 발효의 연기를 요청했으며, 2024년 9월 21일에는 룰라 대통령이 UN 총회를 위해 EU 집행위원장과 독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해당 사항을 요청함.

□ 브라질은 산림벌채를 낮추고 있지만 근절하기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수출 농축산물의 약 30%가 EUDR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 예상함.

-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5%는 화석연료를 연소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 반해, 브라질은 산림손실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 약 49%를 차지함.
- 2023년 취임한 룰라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산림벌채를 강하게 규제하고, 2030년까지 산림벌채 근절(Zero Deforestation)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림벌채를 통한 농축산물 생산이 이어지고 있음.
 - 2019~2022년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는 산림보존보다 농축산물과 광물 생산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 브라질의 산림 손실이 급격히 증가했음.

1) Latin News, "BRAZIL: Lula continues pressure to delay EU environmental law"(2024. 9. 24)

2) European Union,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 EUDR"

그림 1. 전 세계와 브라질의 온실가스 배출 원인

단위: %



자료: Observatório do Clima, IEA(검색일: 2024. 10.15)

표 1. 브라질의 산림손실 원인

단위: 헥타/연, %

산림손실원인	산림손실 면적 2016-2017 평균 (헥타/연)	비중 (%)
소 사육	849,172	26.1
옥수수	138,980	4.3
대두	248,029	7.6
이유 없음	1,673,302	51.5
목재	203,150	6.3
기타 작물	135,287	4.2
전체	3,247,921	100.0

자료: Trase(검색일: 2024. 10.15)

- 브라질의 주력 수출품은 소고기, 대두, 옥수수, 커피 등으로 EUDR 적용 대상이며, 이 제품은 브라질에서 산림벌채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이기도 함.
- o 브라질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산 농축산물이 전 세계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두 57%, 옥수수 28%, 커피 28%, 소고기 25%로 높음³⁾.
- o 아마존을 비롯한 브라질의 열대우림이나 수풀림이 손실되는 원인은 소 사육이 26.1%를 차지하고, 대두 경작이 7.6%, 목재 생산이 6.3%, 옥수수 경작이 4.3%를 차지함.

□ EU는 브라질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EUDR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발효일을 2025년 12월 30일로 1년 연장하는 안을 EU 의회에 상정함⁴⁾.

-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와 같은 국가나 WTO 사무총장은 EUDR 발효 시점의 연기를 요구했으며, EU에서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는 EUDR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 o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세계 1위와 2위의 팜유 수출국이고, WTO의 사무총장은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나이지리아 코코아의 절반이 유럽으로 수출됨.
- o EUDR의 규제 대상인 농축산물이 산림벌채를 통해 생산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증명하고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높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축산물 수출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함.
- EU 집행위원회는 EUDR의 발효시점을 1년 연기하는 안을 EU 의회에 제안했다고 2024년 10월 2일 발표했으며, EU 의회와 이사회가 승인하면 발효가 연기될 예정임.

박미숙 전문연구원

3) ApexBrasil, 2023, "Why Brazil?"

4)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rengthens support fo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implementation and proposes extra 12 months of phasing-in time, responding to calls by global partners"(2024. 10. 2)